

I. 문제의 제기

세계화와 지방화의 흐름은 원심력과 구심력의 조화와 같이 지역단위의 자생적 발전을 불가피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왜 그것이 현실적으로 여의치 못한가에 대해 클러스터 접근을 해결방안으로 강조하는 연구들(Porter, 1998, 2000), 지역혁신체계를 제시하는 연구들(De La Mothe and Paquet, 1998; 박삼욱·남기범, 2000; 김선배, 2001; 강병주, 2004), 그리고 혁신환경을 강조하는 연구들(Maillat and Lecoq, 1992; Camagni, 1991) 등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혁신네트워크에 주목하고 중개모형 제시 및 중개 활동 분석에 치중하는 연구결과(박중화, 2006), 도시와 지역의 혁신역량 발전과정에서 신뢰의 구축 등 사회적 자본형성에 주목하는 연구결과(박희봉·김명환, 2000; 유평준 외, 2006; 최병훈·조현석, 2010; 권태형·박중화, 2010), 그리고 경로의존적 정책결정 패턴의 제약성을 강조하는 연구결과(박중화, 2009) 등도 최근 제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연구자들은 지역혁신역량과 지역혁신네트워크에 공통으로 작용하면서 그간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자원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아직 그 개념상의 불명료성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지만 흔히 신뢰, 규범, 네트워크, 집단학습 등의 다양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논의에서의 공통적인 속성을 정리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하면 할수록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 단순 작업보다 첨단복합 작업 과정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여러 요인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될 수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혁신주체들 간의 상호연계 및 협력을 강조하는 지역혁신체계에서 사회적 자본은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해당 지역의 사회적 자본의 양이 많으면 지역혁신이 잘 되고 지역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혁신체계와 사회적 자본의 역할관계를 그렇게 평면적으로 정의 상관관계(positive correlation)로 도식화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금융자본이나 물리적 자본과 달리 동일한 사회적 자본이 분야에 따라서 현저히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고, 혁신역량의 원천이자 정치사회적 가치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역할을 특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사회적 자본은 한편으로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네트워크를 폐쇄화시켜 집단 눈가림(collective blindness) 형태로 외부적인 환경변화에 둔감하게 만들 수 있다. 집단 내 신뢰와 규범은 지식기반경제에서 절실한 창조적 긴장(creative tension)이 아니라 집단사고 형태로 귀결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역할인지 과정에서의 과잉동조(overconformity) 형태로 목표수단 대체현상을 초래할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혁신 과정이 단선적이고 일방적인 형태에서 복선적이고 쌍방향적인 과정으로 흔히 인지되고 있는데(Batten et al. 1989), 그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관계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혁신체계는 지역산업의 발전과정에서 지역혁신 역할 주체들의 상호작용과 네트워크 형성, 그리고 나아가 집단학습능력의 함양을 촉진하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그 제도적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비가시적이거나 거래되지 않는 상호의존성(invisible and untraded interdependencies)의 지표 내지 그 상호의존성을 결정하는 핵심변수로 사회적 자본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선 사회적 자본과 지역혁신체계의 관계를 검토한다. 둘째, 지역혁신체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 관련 논의는 주

로 지역혁신역량 제고 관련 기술혁신 조력형태 내지 기술혁신 촉매형태를 강조하고 있다(Coleman, 1990; Grootaert, 1998; Fine, 2001). 그런데 역할내용이나 효과성 그리고 정치사회적 가치지향 등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역혁신체계에서의 사회적 자본 역할의 역기능성 측면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지역경제정책상의 고착성(lock-in) 관련 논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검토한다. 셋째,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로서 사회적 자본의 역기능성 극복과 관련하여 지역혁신체계의 구조적·관계적·인식적 측면을 밝힌다.

II. 사회적 자본과 지역혁신체계

글로벌 경제로의 이행, 지식기반경제로의 흐름 등과 함께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개념으로서 사회적 자본은 이미 한 세기 전부터 사용되어왔다(Portes, 1998: p2). 최근 사회적 자본 개념의 유행은 개발과정에서의 핵심 요소로 기존에 잘 알려져 있던 물리적 자본이나 화폐적 자본과는 다른 형태의 보완재나 촉매제로서 그리고 기존에 간과되어왔던 연결고리의 한 형태로서 주목받고 있다(Grootaert, 1998; Fine, 2001). 비경제적 형태의 자본이자 권한과 활동역량의 원천(Burt, 2000)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사회적 자본과 지역혁신체계에 대한 개념적 논의 및 기존 연구경향 그리고 양자 간의 관계 등을 검토한다.

1.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성에 토대하고, 사회적 관계성으로부터 유도되는 자원으로 흔히 개념화

되고 있다. Portes(1998: p7)는 경제적 자본은 개별 은행계좌에 있고 인적 자본은 각자의 두뇌 속에 있지만, 사회적 자본은 그 관계의 구조 속에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Putnam et al.(1993: p167)은 사회의 능률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신뢰(trust), 규범(norms) 및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정의한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린(2008: pp28-33)의 정의는 사회적 구조에 착근되어 있는 자원으로 특정 목적 달성과정에서 접근 내지 동원될 수 있는 자원이다.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Putnam, 2000; Field, 2003: p12).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은 상호이익을 토대로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사회적 응집력을 형성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Grootaert and Bastelaer(2001: p21)은 신뢰의 연계망으로 구체화된 사회적 자본은 물리적 자본이나 노동력 등 다른 생산요소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 가능하고 경제성과를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소진광, 2004: pp92-93 재인용). 동일 맥락에서 린(2008: pp26-27)은 사회적 네트워크에 배태된 자원이 행위의 결과를 향상시키는 이유로 정보 흐름의 촉진, 영향력 발휘, 사회적 신임 보증, 그리고 정체성 인지 재강화라는 네 가지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정보의 흐름이 촉진된다. 개인이나 집단은 흔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완전한 정보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 사회적 유대를 통해 개인이나 집단은 기회와 선택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제반 의사결정과 활동 과정에서 거래비용을 줄여갈 수 있다. 둘째, 영향력의 발휘다. 사회적 유대를 통해 고용, 승진 등의 중요한 순간에 핵심역할 주체들에 접근할 수 있고 그들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구

조직 구멍(structural hole)과 같은 전략적 위치에 기반한 사회적 유대는 보다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 그래서 중요한 사람의 ‘한 말씀’은 개인이나 집단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신임(social credential)의 보증이다. 사회적 유대와 공인된 관계를 통해 개인이나 집단은 사회적 신임을 얻을 수 있다. 사회적 유대 형태의 자본은 흔히 해당자의 자질이나 역량을 넘어서는 사회적 신임을 보증해준다.²⁾ 넷째, 사회적 유대를 통해 정체성의 식별과 현상에 대한 공통인지를 개발할 수 있다. 유사한 이해관계와 자원을 공유하는 집단 속의 개인은 해당 집단에서의 귀속감뿐만 아니라 특정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게 된다.

Nahapiet and Ghoshal(1998: p245) 역시 네트워크에서 사회적 자본의 두 가지 중요한 생산적인 효과를 강조한다. 첫째, 사회적 자본은 활동 능률성을 높인다. 특히 가외성을 줄임으로써 정보 분배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점검과정의 필요성을 줄여 거래비용을 감소시킨다. 둘째, 사회적 자본은 적응적 능률성(adaptive efficiency)의 기회를 창조한다. 협력적 행태의 기회를 북돋움으로써 사회적 자본은 창조적 상호작용과 집단적 학습과정을 촉진한다(Tura and Harmaakorpi. 2005: p1115 재인용). Coleman(1990)은 사회적 자본을 특정 유형의 행태를 촉진하는 기능, 네트워크상의 정보채널, 규범 및 통제 등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사회적 자본과 개방적 네트워크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사회적 자본의 촉매자, 결합자, 제어자로서의 역할 측면을 강조하

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 그 사회적 관계망 속의 개인 또는 집단이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접근 내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다. 다만 그 자원은 화폐나 기타 유형적 재화와 달리 특정 개인이 전유할 수 없고, 유형적인 형태로 표출할 수는 있지만 대개 무형적인 형태로 존재하며, 총량을 특정화하기도 어렵다. 사회적 자본의 이와 같은 속성은 사회적 자본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 배태된 자원이기 때문이다.

2. 지역혁신체계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는 지역혁신 과정에서 지역혁신 역할 주체들이 상호 유기적인 연계를 맺고 협력 및 학습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을 말한다. 혁신을 사회적, 비선형의, 상호작용적 학습과정으로 특징화할 때, 혁신은 단순히 한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단일 활동의 결과라기보다는 ‘혁신체계’로 파악해야 한다(Lundvall. 1992). 원래 기술혁신체계는 국가 단위에서 개발되고 적용되어 오다 글로벌 경제로의 진전과정에서 Porter(1998, 2000)가 언급하는 ‘입지의 역설(the location paradox)’ 형태로 지역 차원의 기술혁신 과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Camagni. 1991; Grabher. 1993). 최근 지역혁신체계에 관한 논의는 전략적 유연성과 진화적 문제해결 방식 등을 강조함으로써 지역적 차원의 새로운 환경창출, 즉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토대한 지역밀착형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1) Burt(1992)는 구조적 구멍은 전기회로에서의 절연체와 같은 하나의 완충물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서로 다른 두 접촉은 완충적인 구멍으로 인해 ‘두 접촉 사이의 과다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하고 혜택을 얻게 된다는 것임.

2) 후쿠야마(1996: p77)에 의하면, M. Weber는 「프로테스탄트 분파와 자본주의 정신(The Protestant Sect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에서 미국여행 중 많은 사업가들이 정직과 신용에 대한 징표를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소개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음.

있다(박종화, 2006: p175).

Kaufmann and Töedting(2000: p30)은 지역혁신 체계의 형성에 대한 요인과 메커니즘에 대한 관련 연구결과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박삼욱·남기범, 2000: p131 재인용). 첫째, 지역은 노동력, 교육, 연구기관, 지식의 외부성과 파급효과 등 혁신의 전제조건들이 각각 상이하다. 그리고 이들 요소의 이동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둘째, 산업의 군집은 흔히 국지적으로 진행되고 지역 내에서 네트워크와 특정의 기술혁신 패턴을 유발한다. 셋째, 국지적인 생산체계에서는 집단학습을 통해 혁신환경으로 유도하는 공통의 기술적 문화가 개발될 수 있다. 넷째, 산학연계와 지식의 파급효과는 흔히 지역적인 첨단기술개발을 유도한다. 다섯째, 지역정책은 특정한 제도와 기능을 통해 혁신기반을 제공하고 혁신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지역혁신체계란 지리적 근접성,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문화적 구조에 토대한 기술혁신에 명백한 초점을 둔 것임을 알 수 있다. 동일 맥락에서 김선배(2001)와 박종화(2006) 등은 지역혁신체계에서 혁신주체 간 상호작용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과 같은 정책적 요인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혁신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어떻게 하면 역동적인 지역혁신체계로 만들어갈 것인지와 동태적 효율성을 이룩해갈 것인지가 중요하다.

혁신역량은 지역의 경쟁우위를 형성하는 핵심요인으로 광범위하게 인지되고 있다. 현재의 혁신 패러다임은 혁신의 비선형적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혁신환경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혁신역량은 지역 내에 존재하는 제반 혁신역할주체들의 총합적 혁신역량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지역혁신체계 내에 존재하는 기업 및 기타 기관들과 관련 네트워크의 결합적 혁신역량을 지역혁신역량

으로 간주할 수 있다. 혁신을 사회적, 비선형의, 상호작용적 학습과정으로 특징화하는 것은 혁신과정에 있어서 기술적 요인보다 사회문화적 구조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North, 1990). 기존 기술적 상황보다 해당 지역의 사회제도적 환경이 성공적인 혁신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다. 지역적인 관점에서 혁신은 결국 지역혁신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지역에 착근된 과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혁신역량 형성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 최근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Tura and Harmaakorpi, 2005: pp1112-1113).

지역혁신역량을 제고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다른 유사 관련 개념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제대로 깊이 있게 검토되지 못했다(Tura and Harmaakorpi, 2005: p1112).

3. 사회적 자본과 지역혁신체계의 관계

지역혁신체계는 진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지역에서 생성되고 발전하고 쇠퇴하는 것이다. 정의상 지역은 개별 기업 간의 관계에 비해 관계의 측면, 빈도, 내용, 방향 등이 훨씬 이질적이고 복잡 다양하다. 따라서 혁신과정에서 불확실성 감소, 거래비용 감소, 조정비용 감소 등으로 혁신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적 자본과 지역혁신체계 관계 역시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Schientock and Hämmäläinen, 2001: p4; Tura and Harmaakorpi, 2005: p1119).

지역혁신체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 복합성은 우선 지역혁신체계의 속성상의 특성과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의 다양성 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경제 패러다임이 지배적인 현실에서는 지역혁

신에서 지역기술혁신이 강조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지역혁신이 지역기술혁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기술혁신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문화혁신, 지역정치혁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지역혁신체계는 여러 부문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지역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 역시 역할의 복잡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더욱이 이론적 고찰에서 밝혀졌듯이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는 다양하다. 학문적 특성이나 영역별 특성 그리고 장소적 특성별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는 다양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그 역할 및 효과도 다양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 자본의 역할내용의 다양성에 따른 복잡성 측면과 함께 역할방향의 이질성으로 인한 복잡성 측면도 고려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지역혁신 과정에서 긍정적인 기여와 함께 부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사회적 자본의 수준은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한다는 주장(Landry et al. 2002; 유평준 외. 2006)과 오히려 지역의 혁신역량에 손상이 된다는 상충적인 주장(Florida et al. 2002; Fromhold-Eisbith. 2002)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긍정적인 입장은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곳이 지역혁신 역할 주체들 간 네트워킹을 촉진시키고 거래비용을 줄여줌으로써 지역기업들의 혁신활동에 기여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유평준 외(2006)는 지역혁신클러스터에서 추구하는 학습과 혁신역량 발전과정에서 사회구성적 변수가 중요하고, 특히 신뢰의 구축 등 사회적 자본 형성이 자율적·창의적 클러스터 발전에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반면 부정적인 입장은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은 곳이 오히려 지역의 혁신

신과정이나 창조적 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다는 것은 지역혁신 역할 주체들 간에 안정감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외부세계의 새로운 정보나 기술유입에 대해서 수동적이거나 폐쇄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간 연대(ties)의 특성에 따라 인연적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교량적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으로 구분되고 있다(Putnam. 2000: pp20-22; Grootaert et al. 2003). 인연적 사회적 자본은 가족, 이웃 및 가까운 친구와 같은 필연성에 기초한다. 교량적 사회적 자본은 공통기반을 공유하지 않은 사람들끼리의 보다 느슨한 형태의 수평적 연대형태로 필요성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교량적 사회적 자본이 다양한 수평적 집단 간에 형성되는 연결성의 결속을 만들어낸다면, 인연적 사회적 자본은 동질적 집단의 구성원들만을 연결한다. 결과적으로 교량적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지역사회나 지역에 있는 역할 주체들 간의 약한 연대(weak ties)를 말한다.³⁾ 이 두 가지 연대형태와 구분되는 형태로서 연계적 사회적 자본(linking social capital)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Woolcock. 1999). 연계적 사회적 자본은 경찰, 정당과 같은 주민대표 기관이나 은행과 같은 사적 기관들을 이어주는 연계형태로 선택적 친화력에 기초하고 있다. 지역개발 과정에서 관련 역할 주체들 간에 촉매,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개기관은 연계적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소진광. 2004: pp98-99 재인용).

3) 이 점에서 교량적 사회적 자본이 다영역 연계(cross-field connections)형태와 유사함. 하지만 교량적 사회적 자본이 다양한 지역의 역할 주체들 간에 약한 연계를 의미하는 데 반해, 다영역 연계형태는 다양한 부문들 간에 어떤 종류의 상호연계성이든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음(Tura and Harmaakorpi. 2005: p1120).

III. 지역혁신체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기능성

사회적 자본의 개념분석 및 지역혁신체계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 검토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지역혁신체계의 작동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은 점점 더 복잡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 관계는 단순한 정의 상관관계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 역기능성 측면 등이 혼재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역기능성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역할방향·구성원 간 연대의 특성이 지역혁신체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따라 발현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네트워크 폐쇄, 관계적인 측면에서 집단사고, 인식적인 측면에서 과잉동조 현상을 논의한다. 물론 이 세 가지 현상들이 배타적이거나 완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상당부분 연결되어 존재하고 발현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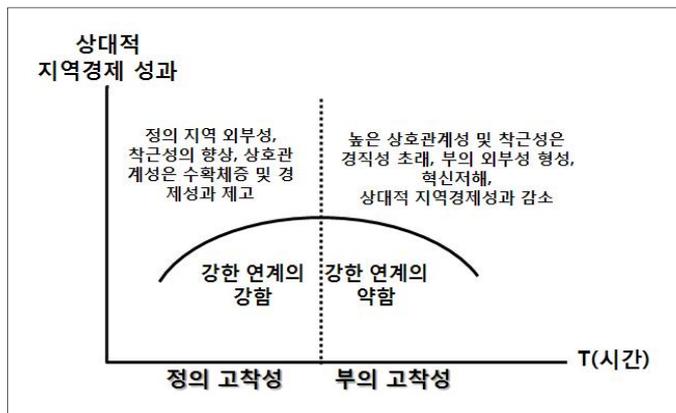
1. 네트워크 폐쇄

최근 지역혁신논의에서 네트워크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지역의 경쟁우위에 도움이 되는 물리적 인프라와 의사전달 네트워크 관점뿐만 아니라 역동적 환경변화 과정에서 기업과 서비스 기관들의 새로운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는 지식 및 정보, 재화 및 사람의 교환 과정을 효율화하고 물류, 마케팅, 판매 정책을 위한 적절한 채널을 제공한다. 경쟁력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높은 질적 수준의 지식, 정보, 원격통신 및 기타 인프라 네트워크로의 접근성을 얻게 됨으로써 기업은 학습과정을 효율화하고 불확실성을 감소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지역혁신 역할 주체들에게 창조적이고 새로운 의사결정 및 전략수립을 위한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확실성의 감소는 정보사회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편익에 해당할 것이다 (Nijkamp et al. 1994). 결과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지역혁신체계에서 순기능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에서 사회적 자본의 존재와 경쟁력 있는 네트워크의 형성이 정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

사회적 자본은 개념상 네트워크 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창조적 파괴를 토대로 하는 혁신의 기본 개념상 지역네트워크는 새로운 외부변화에 항상 개방적이고 유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회적 자본량이나 수준이 지역혁신 역할 주체들이 폐쇄적이고 경직적으로 움직이도록 기여할 경우 그 관계는 역기능적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관계는 <그림 1>에서 명료하게 나타난다. ‘강한 연계의 강함’의 단계까지는 정의 고착성(positive lock-in)의 형태로 상호 관계성이 높을수록 경제성고가 높아지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서 ‘강한 연계의 약함’의 단계에서는 부의 고착성(negative lock-in)의 형태로 높은 상호 관계성이 오히려 지역경제성과 감소에 기여하게 된다.

그림 1_ 지역개발 과정에서 정의 고착성에서 부의 고착성으로 이행



자료: Martin and Sunley(2006: p416).

부의 고착성은 사회적 자본이 네트워크의 폐쇄성(network closure)이나 집단눈가림(collective blindness) 현상을 초래하게 될 때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네트워크의 폐쇄성은 네트워크 구성 주체들 간에만 긴밀한 상호작용적 관계를 맺고 그 네트워크 바깥에 있는 실체들과는 제대로 된 상호작용관계가 맺어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집단적 눈가림 현상은 특정 네트워크가 해당 네트워크의 목적설정이거나 목적 달성방법을 집합적으로 잘못 설정하는 경우를 말한다(Tura and Harmaakorpi. 2005: pp1120-1121). 그런데 사회적 자본이 네트워크를 폐쇄적으로 유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보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Putnam(2000)의 지적처럼 사회적 자본은 인연적 사회적 자본과 교량적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형태의 사회적 자본은 형성과정과 속성 그리고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인연적 사회적 자본은 이미 언급되었듯이 특별 이해관계집단으로 형성되고 배타적(exclusive)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교량적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지역사회나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역할 주체들 간의 약한 연대(weak ties)에 기초한 포용적(inclusive) 속성을 지니고 있다.⁴⁾ 따라서 초기 발전단계에서는 인연적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높겠지만, 그 중요성은 점점 약화되고 이후 교량적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확대될 것이다.⁵⁾

Woolcock(1999) 역시 경제적 발전이 실행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 착근성과 함께 자율성(autonomy)

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제반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인연적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빛을 발하지만, 초기 발전단계를 넘어서면 비지역적(non-local)인 전문적·산업적·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교량적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것이다. 비즈니스가 특정 규모(예: 임계규모)에 도달하게 되면, 새 시장접근이나 ‘아는 사람’의 범위를 뛰어넘는 능률적 공급자를 확보하기 위해 교량적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것이다(약한 연계의 강함의 예). Florida et al.(2002)과 Fromhold-Eisbith(2002)와 같이 인연적 사회적 자본이 지배적인 지역이나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면, 해당 지역 또는 부문의 네트워크 혁신역량은 매우 취약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 Landry et al.(2002)과 같이 교량적 사회적 자본에 초점을 맞추면 혁신수준과 사회적 자본 수준 간에는 정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사회적 자본이 지역혁신체계 목적달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네트워크가 잘못된 분야(영역)에서 작동하는 경우(사회적 자본이 지역혁신 역할 주체들이 사실상 추구하지 않는 행동기회를 창출)이며 또 하나는 네트워크가 올바른 분야에 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지역혁신 역할 주체들이 사실상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다(Tura and Harmaakorpi. 2005: p1121). 네트워크 폐쇄로 인한 문제는 후자의

4) Glaeser et al.(2002)은 사회적 자본의 핵심 구성요소인 신뢰를 특별화된 신뢰(particularized trust)와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로 구분함. 특별화된 신뢰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인 반면, 일반화된 신뢰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과의 관계임. 일반화된 신뢰는 감시비용을 줄이고 공식적·비공식적 거래를 용이하게 하여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하지만, 특별화된 신뢰는 테러조직이나 범죄조직과 같이 사회에 해로운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김시윤. 2008: p9 재인용).

5) 영국 캠브리지 사례를 보면, 기술기업의 초기개발단계에서는 인연적 사회적 자본이 중요함. 그러나 지식기반경제가 확대되고 관련 기업이 임계규모에 도달하게 되면, 인연적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교량적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높아지게 됨(Iyer et al. 2005: pp1019-1020). 30년 이상의 개발역사를 가진 한국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이 혁신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최병훈·조현석(2010)의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량적 사회적 자본의 영향이 인연적 사회적 자본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

경우에 해당한다. 사회적 자본이 단순히 네트워크 폐쇄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인연적 사회적 자본이 지배적인 경우 네트워크 폐쇄성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역환경은 끊임없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데 반해 혁신네트워크가 폐쇄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지역혁신주체들 간 창조적 긴장을 손상하고 경쟁력을 훼손하게 될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Cooke et al.(2005: p1068)의 지적처럼, 사회적 자본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회적 자본의 종류와 이용목적에 따라 부정적인 속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2. 집단사고

사회적 자본의 역할 주체는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은 집단적인 수준에서만 생성되고 집단을 통해서만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궁극적으로 집단적인 현상이다(Tura and Harmaakorpi. 2005: p1117). Granovetter가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사람들은 가족, 이웃, 교우관계, 직장, 교회, 민족 따위의 다양한 사회집단에 뿌리박고 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 과정에서 집단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 사이에 균형을 맞추어 가는 것이다(후쿠야마. 1996: p43). 사회적 자본은 본질적으로 ‘자본(capital)’ 논의에서 간과되어왔던 ‘사회적(social)’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기존 자본 논의’의 불완전성을 보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 집단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집단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역기능적인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여기서의 집단사고(groupthink)의 함정은 집단구성원들 간에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동료나 타 역할 주체의 의사를 단순신뢰 형태로 추종함으로써 모두가 원하지 않는 결과에 빠지는 형태를 말한다. 즉, 개인적인 관계성(personal relationships)에 토대한 사회적 자본이 ‘끼리끼리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고, 무엇을 아느냐보다는 누구를 아는가에 따라 상황에 대한 관리적인 반응이 유도되는 식의 집단사고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시장, 기술개발, 그리고 생산과 관련해 지역혁신주체들이 사실상 추구하지 않는 행동기회를 창출하게 된다.⁶⁾

지식기반경제의 혁신과 경쟁력 확보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경쟁력이 정태적인 가격토대 경쟁이 아니라 역동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Arrow(2000: pp3-5)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이고, 그 상호작용 효과가 경제적 지속성을 가지는 정도까지 ‘자본적’이 된다고 주장한다. 솔로우-스완 성장모형(the Solow-Swan Growth Model)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자본은 기술이 이용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신기술의 조기 채택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집단사고로 동태적인 환경변화에 둔감하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Grabher(1993)가 주목하는 내부지향적 네트워크(inward-looking networks)의 경우 집단사고 형태로 귀착하게 될 것이다.⁷⁾ 이 경우 해당 시스템은 고착 상태로 나아가게 되고 새

6) 지역혁신체계 내에서 지역혁신주체들 간에 부정적인 외부성(negative externalities)으로 시장 및 생산 관련 집단사고의 문제와 혼잡(congestion) 문제 등이 언급되고 있음(Brown and McNaughton. 2002).

7) 지역적 경로의존성에 대한 박종희(2009: pp246-251)의 연구에 의하면, 대도시지역의 경우 내부지향적인 집단사고 등으로 새로운 기술적·생산적 역량에서 낮은 수준의 ‘수용역량(absorptive capacity)’을 나타내고, 결과적으로 ‘낮은 단계의 적응성’을 보여주고 있음.

로 진입하는 실체에 대한 기회는 거의 제공되지 못할 것이다(Boschma, 2005: p68). Porter(1998) 역시 개인적인 관계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집단사고로 이행할 위험을 안고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인연적 사회적 자본이 지배적인 경우 집단사고로 귀착하게 될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Grabher(1993)가 루르지방의 석탄과 철강산업단의 쇠퇴원인으로 지적한 세 가지 고착성 중 인식적 고착성(cognitive lock-in)은 집단 내 공통의 세계관으로 인한 집단사고 문제의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⁸⁾ 인식적 고착성으로 루르 석탄-철강산업단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흡수할 수 없었고 둔감하게 된 것이다. 집단사고는 동일성(sameness)을 연계하고 집단 내 협력을 강조한다. 동일한 맥락에서 Olson(1982)은 특정 이해관계에 기초한 수평적 연대(horizontal associations)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⁹⁾ 이와 같은 연대는 특혜적인 정책을 향한 집단로비 등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은 전체 사회에 부적절한 비용(disproportionate cost)을 부과하게 된다.

3. 과잉동조

Nahapiet and Ghoshal(1998: p243)은 사회적 자본을 “관계성의 네트워크로부터 유도되는, 관계성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 가능한, 관계성의 네트워크 내에 착근되어 있는 실질적 잠재적 자원의 총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역혁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네트워크가 필요하지만, 지역혁신네

트워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지역혁신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가 보다 중요하다. 네트워크 구성요소들, 연결밀도, 연결방향 등이 네트워크의 실제적·잠재적 역량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잉동조(overconformity) 현상은 네트워크 구성요소들 간 연결밀도와 연결방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소위 ‘목표와 수단의 대체현상(the displacement of means and goals)’ 등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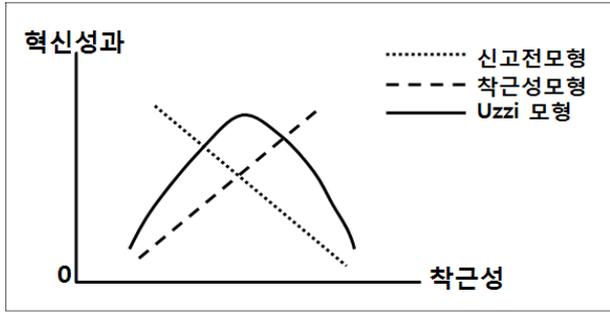
특정 동태적 시스템에서 사회적 자본 등에 의해 활동의 연속적인 패턴이 ‘관례(groove)’를 형성하고 따라서 회피하기가 어렵게 될 경우, Setterfield(1997: p36)는 그 시스템이 특정한 기술, 산업 또는 제도적 체제에 과잉동조(over-committed)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조직 내든 조직 간이든 과잉동조로 인해 Levitt and March(1996)가 지적하는 ‘역량함정(competence trap)’에 빠지게 되면 기존 개발경로에 고착되고 새로운 시장수요나 개발형태를 간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동일한 맥락에서 경제적 관계의 사회적 측면인 착근성(embeddedness)과 기업혁신성과의 관계에 대해 <그림 2>의 Uzzi(1997) 모형은 기존 신고전 모형과 착근성 모형을 보완하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Uzzi 모형은 착근성과 혁신성과 간에 역 U자형 관계를 제시한다. 즉, 경제적 관계의 사회적 측면(착근성)이 어느 수준까지는 혁신성과와 정의 관계를 이루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면 부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는 기본적으로 지역경제성과와 발전단계(시간)에 대한 <그림 1>의 관계와 동일

8) Grabher(1993)는 인식적 고착성 외에 기능적 고착성(functional lock-in)과 정치적 고착성(political lock-in)을 지적하고 있음. 기능적 고착성은 계층적인 기업관계를 토대로 한 것이고, 정치적 고착성은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밀집하고 조밀한 제도적 구조에 기인한 것임.

9) 여기서의 수평적 연대는 특정 이해관계에 기초한 집단 내에서의 연대, 즉 인연적 사회적 자본의 속성을 강조한 것임. 이에 반해 Granovetter(1973, 1985)가 강조하는 ‘약한 연대(weak ties)’ 또는 ‘횡단적 사회적 연대(cross-cutting social ties)’는 교량적 사회적 자본의 속성을 강조하는 것임.

그림 2_ 착근성의 정도와 기업의 혁신성과와의 관계



자료: Boschma et al.(2002: p31).

한 것이다. 높은 상호 관계성 및 착근성이 경직성을 초래하고 부의 외부성을 형성해서 혁신을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영향 면에서 Uzzi 모형상의 과잉착근은 과잉동조적 특성을 드러내게 된다. 일정 수준을 넘어선 착근관계에 의한 과잉동조현상은 특정 교환관계에 고착되고 의사소통과 이해에 있어서 관계 특장적 투지에 지나친 의존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계층적 형태의 거버넌스는 보다 대칭적인 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피드백 메커니즘을 결여하기 쉽다. 결과적으로 관료적 시스템하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따라서 상호작용적 혁신과정이 생성되기 어렵게 된다(Boschma, 2005: pp63-67).

Putnam et al.(1993)은 사회적 자본이 네트워크 내에서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며, 반복된 상호작용과 긍정적인 관계성을 통해 창출된다고 보았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가족적인 유대나 가족적인 커뮤니티와 같이 복잡하고 깊은 사회적인 연대를 흔히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혁신체계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관계나 기여는 복잡하고 깊은 사회적 관계나 유대관계의 긴 역사적 측면보다는 지역혁신 역할 주체들 간에 생산적인 상호작용 측면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기존 멤버들 간의 강력한 연대는 새로 오는 사람들이나 외부인을 배제하는 데 이용될지 모르며 이 경

우 시작단계의 기업들(start-up firms)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멤버십이 멤버들 간 통상적인 열등한 관리관행을 강화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멤버들 간의 과잉동조 현상은 창의성이나 기업가정신을 마비시킬 뿐 아니라 객관성의 상실(a loss of objectivity)로 유도할 수 있다(Brown and McNaughton, 2002).

사회집단들은 흔히 그 연대관계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사회 결속력이 강한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분산화와 대립 그리고 사회계층의 형성으로 보일 수도 있다(후쿠야마, 1996: p217). 기업연합체, 전문직의 연합, 조합, 로비단체 등은 대체로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하지만 사회의 중요 집단으로서 전체 사회의 경제적 이익을 돕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이유로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조직체들이 집단 내 이해관계를 과잉대변하고 결과적으로 전체 사회의 경제효율성을 저하하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고 있다. M. Olson은 안정된 민주사회의 경기침체는 늘어나는 이익단체의 증가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후쿠야마, 1996: p216 재인용).

IV. 정책적 함의

기존의 자본 개념으로 측정할 수 없는 '사회적 영역'들이 생산성 제고나 관리과정에 존재하고 있다. 그 '사회적 영역'들이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 글로벌 경제로의 이행 그리고 정보화사회로의 이행 등의 환경변화와 맞물려 점점 더 확대되며 중요성의 비중도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III장에서의 분석결과와 같이 네트워크 폐쇄, 집단사고, 과잉동조 등의 사회적 자본의 역기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 지역혁신체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기능적 측면을 축소하고 긍정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역기능적 요소의 특성에 대응하여 정책적 함의로서 구조적 차원, 관계적 차원, 그리고 인식적 차원을 검토한다. 물론 네트워크 폐쇄, 집단사고, 과잉동조 등의 역기능적 요소들이 엄밀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구조적·관계적·인식적 정책적 함의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1. 구조적 차원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지식과 혁신의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전통적 경제이론에서 지식과 혁신은 중심지에서 개발되고 공간을 따라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간다. 지식과 혁신의 이런 분포방식은 공간에서 성극화(polarization) 현상을 초래하므로 내재적으로 ‘계층적 구조(hierarchical structure)’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사회경제적 관계상에서의 다양한 집단이 다양한 지리를 창출하게 된다. 신뢰·상호학습·공유의 공동아젠다·기타 등에 토대한 역동적 혁신지구에 대한 강조가 강화될수록 그 관계성은 기업들 간의 네트워크에 토대한 ‘이질적 결합구조(heterarchical structure)’가 될 것이다(Cooke and Morgan, 1998; Raco, 1999: pp951-953).

지역혁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역 단위에서의 혁신네트워크 존재 자체보다는 그 네트워크의 구성적 측면이 보다 중요하다. 네트워크 구조, 구성요소, 연결밀도, 연결방향 등이 중요한 것이다. 네트워크 폐쇄는 특정 네트워크가 그 자신을 환경으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이다. 폐쇄 네트워크의 구성원은 그 네트워크 내부에서는 밀접하고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가지지만, 그 네트워크 외부에 있는 실체들과는 몇몇의 혹은 미약한 관계성만 가지고 있

다. 폐쇄네트워크는 다른 네트워크와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어렵고 지대추구적 행태(rent-seeking behavior)로 나아가 총합적 경제성과를 저하할 것으로 예상된다(Olson, 1982; Tura and Harmaakorpi, 2005: p1121).

사회적 자본으로 인한 네트워크 폐쇄의 문제는 네트워크가 잘못된 분야(영역)에서 작동하는 경우가 아니라 지역혁신주체들에게 필요한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다. 초기 발전단계를 지나면 인연적 사회적 자본에 비해 교량적 사회적 자본에 대한 수요가 높는데, 인연적 사회적 자본이 여전히 지배적이라면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폐쇄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 III장 1절 논의의 초점이다. 지역혁신체계에서의 네트워크 구조를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책적 노력으로는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진전해 나가야 하는가?

우선 ‘강한연계의 약함’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긍정적인 네트워크의 효과가 지배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으므로 네트워크 강화 쪽으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정부기구가 사람들로 하여금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성을 발휘하고 서로를 신뢰해 나가도록 만들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기존에 작동하고 있던 사회적 자본의 원천(예: 협의체, 시민단체 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개입하는 면밀함이 필요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후쿠야마(1996: p411, p463)는 사회적 자본은 한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미늘형 톱니바퀴’와 같아서,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활동은 오히려 더 큰 낭비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¹⁰⁾

둘째, 사회적 자본의 속성에 따른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클러스터 출현요인과 클러스터의 지속적 성장기여요인은 상이하다는 연구결과와 영국 캄브리지 사례연구(Iyer et al. 2005: pp1019-1020)가 말해주듯이 초기개발단계에서는 인연적 사회적 자본

이 중요하고, 이후에는 교량적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는 하나의 속성으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속성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된다.

셋째, 지역혁신주체들 간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형을 개발·시행할 수 있다. 실리콘 벨리, 제3 이탈리아,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등 소위 성공적인 신산업지구(NIDs)들은 유연노동력과 생산네트워크를 통해 적응성과 혁신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산업지구의 조직과 리더십은 대규모의 수직적으로 통합된 회사 형태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지구 나름대로의 전문화된 생산 및 서비스 체계에서 획득된 것이다. 특히 지구 내 수많은 이질적인 기업·연구기관·공공부문들 간의 횡적 네트워크(lateral networks) 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쟁력의 제고와 경제적 활동의 착근성을 이룩한 것이다(Raco, 1999: pp951-953). 지역경제정책에서 정부의 역할범위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혁신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조를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수평적이고 유기적 네트워크 형성의 의의가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구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대한 최근의 한 경험적 연구(권태형·박종화, 2011)는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형 혁신지원기관 연계거버넌스 모형의 정책적 실효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혁신체계에서 중개기관이나 중개모형의 적용성 분석 연구(박종화, 2006)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2. 관계적 차원

사회적 자본이 집단사고 형태로 전체 사회에 부적절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이 III장 2절에서 논의되었다. 개인적인 관계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 등으로 집단사고라는 부정적 외부성을 초래하여 집단구성원들 간에 제대로 된 정보공유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혁신주체들이 사실상 추구하지 않는 행동기회를 창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정 이해관계에 기초한 수평적 연대가 인연적 사회적 자본의 속성에 토대하고 있을 때 그 부정적인 영향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논의되었다. 그렇다면 지역혁신주체들 간의 관계성은 무엇에 토대하고 어떻게 발전해감으로써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자본은 경제분석 과정에 사회적 측면을 복원하려 한 착근성의 이론화 그리고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네트워크 구조의 중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주목받고 있다(Granovetter, 1985; Cooke and Morgan, 1998). 사회적 자본 논의는 개인의 행태에서 집단, 사회적 단위, 제도 등으로 적용 영역이 더욱 광범위해지고, 분석의 초점 역시 현상분석에서 갈등의 패턴분석으로 이행해가고 있다(Cooke et al., 2005: p1066).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량적 사회적 자본에 비해 인연적 사회적 자본이 지배적인 경우 개인적인 관계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결국 집단사고로 이행하게 되고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역기능성이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혁신 주체들이 사실상 추구하고 있는 행동기회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시점과 상황에 맞는 네트워크 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Granovetter(1985)가 네트워크 접촉들 간에 강한 연계의 취약함과 약한 연계와 느슨한 결합의 강함을

10) 행동경제학자인 D. Ariely는 최근 이스라엘 택이소 경험을 사례로 사회적 규범과 시장의 규칙이 충돌하면 사회적 규범이 밀리고 시장의 규칙이 지배하게 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에리얼리, 2008: pp113-122).

지적하고 있는 것 역시 시점과 상황별 네트워크의 관계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Grabher(1993)가 언급한 루르 사례에서의 집단사고의 문제점 역시 사회적 자본의 활용 측면이자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적 측면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실정에 맞는 네트워크 관계 모색과정에서는 Castaldi and Dosi(2003)가 ‘지역적 고착’ 탈출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토착적 창조, 이질성과 다양성, 다른 곳으로부터의 이식, 기존 산업 개선, 기술적 관련 산업의 다양화)를 참조할 수 있다(Martin and Sunley, 2006: pp419-424 재인용).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쇠퇴하게 된 지역에서는 새로운 토착적인 개발경로(a new indigenous development path)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련 로컬 기술적 선행이 없는 상태에서는 ‘입지적 기회의 창(windows of locational opportunity)’을 활용한 신산업부문을 수립할 수 있는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로컬 산업, 기술 및 조직의 이질성과 다양성은 개인적인 관계성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원천적으로 어렵게 하고 혁신과 경제적 재구조화를 촉진할 수 있다. 그런데 이질성과 다양성을 통해 집단사고의 함정을 극복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전문화를 통한 빠른 성장에는 손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역동적인 지역들은 캠브리지 하이테크 클러스터와 같이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상당히 다양화된 경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강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성장의 신경로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른 곳으로부터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수입하고 기존 산업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집단사고로의 이행을 제어하고 새로운 변화 흐름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로부터 새로운 조직적인 형태, 급진적인 신기술, 신상품, 신기업 또는 신제도적인

장치 등의 수입과 확산이 침입(invasion)이나 이식(transplantation)의 형태로 진전되면 지역경제는 지역혁신주체들 간 새로운 관계형성에 토대한 적응력을 보여주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과거 한때 핵심 산업과 기술이 집단사고 등으로 인해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쇠퇴했다라도 그 기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관련 산업과 기술로의 다양화(diversification) 형태로 신기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지역산업토대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때 오하이오주 애크론시는 자동차 타이어 산업으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타이어 산업은 사라지고 폴리머 엔지니어링 산업으로 유명하다. 새로운 기술적 관계에 지역경제가 적응한 예다(Martin and Sunley, 2006: pp419-424).

Marshall(1916)은 산업국지화에 따른 외부경제의 삼각 축으로 숙련 노동력, 지원 및 부속산업, 그리고 지식과급을 언급했다. 그리고 그에 더해 관계적 측면으로 ‘허공 중에 있는 그 무엇(something in the air)’ 또는 ‘산업적 분위기(industrial atmosphere)’를 제시하고 있다. Porter(1998, 2000)는 지역적 경쟁우위가 지리적으로 지방화되거나 클러스터화된 활동의 중재와 역동성으로부터 연유한다고 하며, 강력한 로컬 경쟁관계, 양호한 요소투입 조건, 요구사항이 많은 로컬고객, 로컬 기반한 역량 있는 공급업자 및 지원 산업의 존재를 소위 다이아몬드 모델 형태로 강조하고 있다. A. Marshall과 M. Porter의 논의를 종합하면, 지역적 경쟁우위는 성공요소들의 사회적 착근성의 정도와 그 요소들을 맺어주는 촉진적 사회적 네트워크 관계에서 비롯된다. 즉, 소프트한 외부성의 형성 및 발전을 지역경쟁 우위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다(Kitson and Primost, 2005: p994). 이것은 Storper(1995)가 지역경쟁우위에서 ‘거래되지 않는 상호의존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¹¹⁾ 결과적으로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제대로 적

응하고 지역혁신주체들 간 정보흐름이 원활하면서 동시에 정보공유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축진적으로 형성 및 발전해가야 하는 것이다.

3. 인식적 차원

지역혁신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조 내지 관계를 강조하는 주장이 기술개발과 생산 그리고 교환과정에서의 경제적인 논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생산체계와 거래관계에서 역할 주체들이 네트워크 구조와 상황 속에서 움직이게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네트워크 외부성과 파급효과 그리고 공통인지(common cognition) 등으로 인해 해당 네트워크의 수준과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신뢰변수 등 사회적 자본의 지역적 착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인지할 수 있다.¹²⁾ Porter(1990) 역시 지역혁신주체들의 공통입지를 통한 네트워크 연계성과 공유 기대가 실질적인 파급효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역혁신체계론, 클러스터론 또는 혁신환경론(milieu) 등이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해당 시스템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등의 형태로 기업의 행동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Camagni, 1991). 그리고 그 조정 메커니즘은 Lorenzen and Foss (2003)가 강조하는 것처럼, 인센티브 조정과 인식적 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인센티브 조정(incentive coordination)은 평판효과와 사회적 제재 등이 지역기업들 간의 이해관계와 행태를 조정하도록 작동하고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피할 수 있도록 작동한다는 것이다. 물론 최근의 중

개활동 관련 연구들(박종화, 2006)은 전문화된 지역 중개조직들이 불확실성하에서 위험하거나 거래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비즈니스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Lorenzen and Foss(2003)는 행태조정을 유인관점이 아니라 기업들 간에 내재적인 자기강화 계약(implicit, self-reinforcing contracts)이나 공통전략에 토대한 인식적 조정형태로 파악하고 있다. 상호협력하고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삼가는 것은 단순히 인센티브의 문제가 아니라 상시 상호작용하고 있던 기업들 간에는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공유지식(shared knowledge)을 통해 기업들은 서로의 기술, 방법 등을 이해하고, 어떻게 행위하고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공통전략을 개발하게 된다. 즉, 공유지식을 통해 인식적 조정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들 간에 공통지식을 형성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여기서 우리는 가족, 친구, 또는 친구의 친구 네트워크에 의존하게 된다(Lorenzen, 2002; Lorenzen and Foss, 2003). 그런데 과잉동조 등 인식적 차원의 문제는 특정 네트워크가 집합적으로 그 초점을 잘못 설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목적을 잘못 인식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목적에 도달하는 수단을 잘못 인식하고 선택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인식적 차원의 문제는 해당 네트워크의 입지와 활용 그리고 발전과정에서 유용한 외부정보에 대한 흡수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해당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McGregor(1960)의 X이론에서의 가정과 같이 고용주가 근로자들을 원래 게으르고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근로자들의 작업 활동을 매사에 감시·감독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

11) Storper(1995)는 '거래되지 않는 상호의존관계'의 내용으로 암묵지의 흐름, 기술적 파급효과, 신뢰와 협력의 네트워크, 그리고 규범과 전통의 로컬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음.

12) 사회참여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성과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 사회신뢰는 중앙 및 지방정부 수준에 상관없이 정부성과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음(유희정·이숙중, 2010).

한다고 하자. 이 경우 저수준의 신뢰가 결국 근로자들의 작업에 대한 보다 높은 감시비용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키게 된다면 인식적 차원의 문제가 해당 네트워크에서 부정적 외부성을 초래하는 경우가 된다.¹³⁾

우리는 의사나 교수가 의사나 교수로서의 전문직업적 규범과 원리를 따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고의로 우리를 해치거나 잘못된 것을 가르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즉, 사회적 학습과정을 통해 지역공동체 차원의 공통초점 내지 공통전략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의사나 교수 역시 의사사회나 교수회를 통해 자신들의 신분보호나 수입증대에 치중하고 사회 전체적인 공익추구를 외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인식적 조정이 필요한 목표와 수단의 대체형태에 속하는 과잉동조의 문제로 볼 수 있다. Boschma(2005: pp63-64)는 집단 내 지나친 인식적 근접성으로 인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하면서도 보완적인 역량(diverse but complementary capabilities)에 토대한 공통지식 형성을 강조한다.

V. 맺음말

지역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지역혁신이 주목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역혁신역량, 지역혁신체계 등이 문제해결의 원천이나 틀로서 강조되어왔다. 지역문제 해결의 원천이나 구조에 집중하는 연구 전통은 지역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지역혁신체계, 로컬 클러스터, 또는 혁신환경 관련 연구로 진전되고 있다. 이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혁신주

체들이 상호 유기적 연계관계를 맺고 상호 협력과 경쟁 그리고 집단학습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혁신주체들의 상호 유기적 연계 및 협력관계를 보완하고 촉매작용을 하는 것으로서 최근 사회적 자본이 각광받고 있다.

사회적 자본의 보완성과 촉매성은 네트워크 형성 과정에서 중요하고, 네트워크의 형성 및 작동이 생산성 제고과정에서 핵심적인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속성이 더욱 주목받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나 존재 방식 형태로 사회적 자본의 개념에 대한 논쟁이 진전되고 있고, 대부분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 역할 측면에 대한 검증 형태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 미덕에 속하는 모든 것’의 형태로 사회적 자본을 규정하거나 긍정적인 역할 측면에만 주목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미숙한 논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그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 자본의 잠재적 역할에 대한 파악 및 분석에도 제대로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혁신체계에서 사회적 자본 역할의 복잡성 및 역기능성 등을 강조했다. 특히 네트워크 폐쇄, 집단사고, 과잉동조의 문제점을 지역혁신체계에서의 사회적 자본의 역기능성으로 적시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관련 정책적 함의로서 지역혁신 네트워크의 구조적 측면, 관계적 측면, 인식적 측면을 논의했다.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다면적인 사회적 자본의 개념

13) 반면 McGregor(1960)의 Y이론과 같이 일을 위한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노력은 오락이나 휴식과 같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인간은 목표달성을 위해 스스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대개 책임감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경우, 생산성 제고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욕구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욕구(emotional needs)에 대한 배려가 됨. 이 경우 높은 신뢰 수준이 근로자들의 근무 감독방식과 동기부여 방식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제고시키게 된다면 인식적 차원의 영역이 해당 네트워크에서 긍정적 외부성을 초래하는 경우가 됨.

요소에 집중하는 논의보다는 사회적 자본의 활용영역에서 잠재되어 있는 역기능적 측면의 속성을 밝히고 관련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병주. 2004. “기업지원기관을 위한 지역혁신체제(RIS) 구축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39권 제7호. pp193-210.

권태형·박종화. 2010. “사회적 자본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방정부연구 제14권 제3호. pp97-116.

_____. 2011. “지방정부 기업지원의 전략적 실행모형의 모색 - 대구 스타기업 육성프로젝트의 경험 -”. 한국행정논집 제23권 제1호. pp343-370.

김선배. 2001.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산업정책 모형”. 지역연구 제17권 제2호. pp79-97.

김시윤. 2008. “사회자본과 경제성장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신뢰변수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논집 제20권 제4호. pp1067-1084.

린, 난. 2008. 사회적자본. 김동윤·오소현 역.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박삼욱·남기범. 2000.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및 산업지구 개발방향”. 국토계획 제35권 제3호. pp121-140.

박종화. 2006. “지역혁신체계상의 증가모형 - 대구전략산업기획단의 경험 -”. 국토계획 제41권 제4호. pp171-187.

_____. 2009. “지역산업정책 형성과정에서의 경로의존성: 대구권 산업발전로드맵 수립과정의 경험”. 국토연구 제61권. pp235-254.

박희봉·김명환. 2000.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4권 제4호. pp219-237.

소진광. 2004.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16권 제1호. pp89-118.

에리얼리, 덴. 2008. 상식 밖의 경제학. 장석훈 역. 서울 : 청림출판

유평준·한상일·최호진. 2006. “지역혁신클러스터의 학습과 혁신: 사회적 자본과 전략적 제휴와의 관계”. 한국행정학보 제40권 제1호. pp225-247.

유희정·이숙중. 2010. “사회참여가 정부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 사회신뢰의 매개를 통하여 -”. 한국정책학회보 제19권

제3호. pp29-56.

최병훈·조현석. 2010. “산업클러스터와 혁신 - 사회적 자본과 구조적 요인의 영향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19권 제3호. pp109-136.

후쿠야마, 프랜시스. 1996. 트러스트: 사회도덕과 번영의 창조. 구승희 역. 서울 : 한국경제신문사.

Arrow, K. J. 2000. “Observations on Social Capital”. eds. P. Dasgupta and I. Serageldin.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Washington, DC : World Bank. pp3-5.

Batten, D. F., K. Koboyashi and A. E. Andersson. 1989. “Knowledge, Nodes and Networks: An Analytical Perspective”. eds. A. E. Andersson, K. F. Batten and C. Karlsson. *Knowledge and Industrial Organization*. Berlin : Springer. pp1-18.

Boschma, R. A., J. G. Lambooy and V. Schutjens. 2002. “Embeddedness and Innovation”. eds. M. Taylor and S. Leonard. *Embedded Enterprise and Social Capital. International Perspectives*. Aldershot : Ashgate. pp19-35.

Boschma, R. A. 2005. “Proximity and Innovation: A Critical Assessment”. *Regional Studies* vol.39, no.1. pp61-74.

Brown, P. and R. B. McNaughton. 2002. “Global Competitiveness and Local Networks: A Review of the Literature”. eds. R. B. McNaughton and M. B. Green. *Global Competition and Local Networks*. Burlington, VT : Ashgate. pp3-37.

Burt, R. S. 1992. *Structural Holes: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Cambridge, MA : The Harvard University Press.

_____. 2000. “The contingent Value of Social Capital”. ed. E. L. Lesser.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Foundations and Applications*. Boston, MA : Butterworth-Heinemann. pp255-286.

Camagni, R. 1991. “Local ‘milieu’, Uncertainty and Innovation Networks: towards a New Dynamic Theory of Economic Space”. ed. R. Camagni. *Innovation Networks: Spatial Perspectives*. London : Belhaven. pp121-144.

Castaldi, C. and G. Dosi. 2003. “The Grip of History and the Scope for Novelty: Some Results and Open Questions on Path Dependence in Economic Processes”. Working Paper 2003/02. Laboratory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ant’Anna School of Advanced Studies. Pisa : University of Pisa.

Coleman, J.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 : Belknap Press.

Cooke, P. and K. Morgan. 1998. *The Associational Economy*.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Cooke, P., N. Clifton and M. Oleaga. 2005. "Social Capital, Firm Embeddedness and Regional Development". *Regional Studies* vol.39, no.8. pp1056-1077.
- De La Mothe, J. and G. Paquet. 1998. *Local and Regional Systems of Innovation*. London : Kluwer Academic Publishers.
- Field, J. 2003. *Social Capital*. London : Routledge.
- Fine, B. 2001. *Social Capital vs Social Theory: Political Economy and Social Science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 London : Routledge.
- Florida, R., R. Cushing and G. Gates. 2002. "When Social Capital Stifles Innov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August. p20.
- Fromhold-Eisebith, M. 2002. "Innovative Milieu and Social Capital - Exploring Conceptual Complementaries". Paper Presented at the 42nd Congress of the Europ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ERSA). Dortmund, Germany : ERSA. pp27-31.
- Glaeser, E., D. Laibson and B. Sacerdote. 2002. "The Economic Approach to Social Capital". *Economic Journal* vol.612. pp437-458.
- Grabher, G. 1993. "The Weakness of Strong Ties: the 'Lock-in' of Regional Development in the Ruhr Area". ed. G. Grabher. *The Embedded Firm: On the Socio-Economics of Industrial Networks*. London : Routledge.
-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78. pp1360-1380.
- _____.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78. pp1360-1380.
- Grootaert, C. 1998. "Social Capital: The Missing Link? Social Capital Initiative". Working Paper no.3. NY : World Bank (available at: <http://www.poverty.worldbank.org/library/view/11998/>).
- Grootaert, C. and T. van Bastelaer. 2001. "Understanding and Measuring Social Capital: A Synthesis of Finding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Social Capital Initiative". Center for Institutional Reform and the Informal Sector(IRIS). Working Paper no.24. Collega Park, MD : University of Maryland.
- Grootaert, C., D. Narayan, M. Woolcock and V. Nyhan-Jones. 2003. "Measur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ed Questionnaire". Working Paper no.18. NY : World Bank(available at: <http://www.poverty.worldbank.org/library/view/5459/>).
- Iyer, S., M. Kitson and B. Toh. 2005. "Social Capital, Economic Growth and Regional Development". *Regional Studies* vol.39, no.8. pp1015-1040.
- Kaufmann, A. and F. Tjødting. 2000. "Systems of Innovation in Traditional Industrial Regions. The case of Styria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Regional Studies* vol.34. pp29-40.
- Kitson, M. and D. Primost. 2005. *Corporate Responses to Macroeconomic Changes and Shocks*. Report to the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ESRC). Swindon : ESRC.
- Landry, R., N. Amara and M. Lamari. 2002. "Does social capital determine innovation? To what extent?".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vol.69. pp681-701.
- Levitt, B. and J. March. 1996. "Organizational learning". eds. M. D. Cohen and L. S. Sproull. *Organizational Learning*. Thousand, Oaks, CA. : Sage. pp516-541.
- Lorenzen, M. 2002. "Ties, Trust, and Trade Elements of a Theory of Coordination in Industrial Clusters".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and Organizations* vol.31, no.4. pp14-34.
- Lorenzen, M. and N. J. Foss. 2003. "Cognitive Coordination, Institutions and Clusters: An Exploratory Discussion". eds. D. Fornahl and T. Brenner. *Cooperation, Networks and Institutions in Regional Innovation Systems*. Cheltenham, UK : Edward Elgar. pp82-104.
- Lundvall, B.(ed.). 1992.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Towards a Theory of Innovation and Interactive Learning*. London : Pinter.
- Maillat, D. and B. Lecoq. 1992. "New Technologies and Transformation of Regional Structures in Europe: The Role of the Milieu".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vol.4. pp1-20.
- Marshall, A. 1916. *The Principles of Economics*. London : Macmillan.
- Martin, R. and P. Sunley. 2006. "Path Dependence and Regional Economic Evolution". *Journal of Economic Geography* vol.6. pp395-437.
- McGregor, D. 1960. *The Human Side of Enterprise*. New York : McGraw-Hill.
- Nahapiet, J. and S. Ghoshal. 1998.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3, no.2. pp242-265.
- Nijkamp, P., G. van Oirschot and A. Oosterman. 1994. "Knowledge Networks, Science Parks and Regional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of Critical Success Factors". eds. J. R. Cuadrado-Roura, P. Nijkamp and P. Salva. *Moving Frontiers: Economic*

- Restructuring, Regional Development and Emerging Networks*. Aldershot, UK : Avebury. pp225-246.
- North, D. C.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gilvie, S. C. 2005. "The Use and Abuse of Trust: Social Capital and its Deployment by Early Modern Guilds". *Economic History Yearbook*. Berlin : Akademie. pp15-52.
- Olson, M. 1982.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Economic Growth, Stagflation, and Social Rigidities*.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 Porter, M. E.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 The Free Press.
- _____. 1998. "Clusters and the New Economics of Competition". *Harvard Business Review* Nov-Dec. pp77-90.
- _____. 2000. "Location, Competi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Local Clusters in Global Economy".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vol.14. no.1. pp15-34.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24. pp1-24.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 Simon & Schuster.
- Putnam, R. D., R. Leonardi and R. Nanetti.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aco, M. 1999. "Competition, Collaboration and the New Industrial Districts: Examining the Institutional Turn in Local Economic Development". *Urban Studies* vol.36, no.5/6. pp951-968.
- Schienstock, G. and T. Hämmäläinen. 2001. *Transformation of the Finnish Innovation System. A Network Approach*. Sitra Reports Series no.7. Hakapaino Oy, Helsinki : Sitra.
- Setterfield, M. 1997. *Rapid Growth and Relative Decline: Modelling Macroeconomic Dynamics with Hysteresis*. London : Macmillan.
- Storper, M. 1995. "The Resurgence of Regional Economies Ten Years Later: the Region as a Nexus of Untraded Interdependencies".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vol.2. pp191-221.
- Tura, T. and V. Harmaakorpi. 2005. "Social Capital in Building Regional Innovative Capability". *Regional Studies* vol.39, no.8. pp1111-1125.
- Uzzi, B. 1997. "Social Structure and Competition in Interfirm Networks: the Paradox of Embeddednes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42. pp36-67.
- Woolcock, M. 1999. *Managing Risk, Shocks, and Opportunity in Developing Economies: The Role of Social Capital*. Washington, D.C. : Development Research Group, The World Bank(unpublished).

-
- 논문 접수일: 2011. 3.29
 - 심사 시작일: 2011. 4.13
 - 심사 완료일: 2011. 5.11

The Dysfunctionality of Social Capital in Regional Innovation System

Keywords: the Dysfunctionality of Social Capital, Regional Innovation System, Network Closure, Groupthink, Overconformity

The concept of social capital has recently grown significantly and it is now common for cities and regions to assess and improve their competitive advantages. Yet it remains rather unclear just whether it has negative aspects distinct from the positiv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the performances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The blurr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capital when applied to regional innovation system also complicates matters. In contrast to the typical approach to using social capital as a hidden innovative ingredient, what is required is thus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that also analyzes the negative impact of social capital in regional innovation system. To support this argument, the paper firstly trie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capital and regional innovation system, to analyze the dysfunctional aspects of social capital in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then to explore the policy implications. More specifically, analysis indicates that social capital may have negative impacts on regional innovation system due to network closure, group think and overconformity. The paper also presents a discussion of how the dysfunctionality of social capital may be overcome by suggesting the structural, relational and cognitive dimensions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as policy implications.

지역혁신체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기능성

주제어: 사회적 자본의 역기능성, 지역혁신체계, 네트워크 폐쇄, 집단사고, 과잉동조

최근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도시와 지역의 경쟁우위를 평가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혁신체계의 성과 측면에서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인 효과와 구분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다. 지역혁신체계와 연계했을 때, 사회적 자본의 특성 측면이 불분명한 점 역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을 혁신과정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긍정적인 무엇으로 취급하는 통상적인 인식과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지역혁신체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기능적 측면을 동시에 분석하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은 먼저 사회적 자본과 지역혁신체계의 관계를 검토하여 지역혁신체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기능적 측면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네트워크 폐쇄나 집단사고, 과잉동조 등의 형태로 지역혁신체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게 될지도 모르는 점들을 제시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역기능성 극복과 관련하여 정책적 함의로서 지역혁신체계의 구조적 차원, 관계적 차원 그리고 인식적 차원을 밝힌다.